

Current Issues of the Chinese Economy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3-38호 / 06월 17일

중국의 해외투자 추이와 제약요인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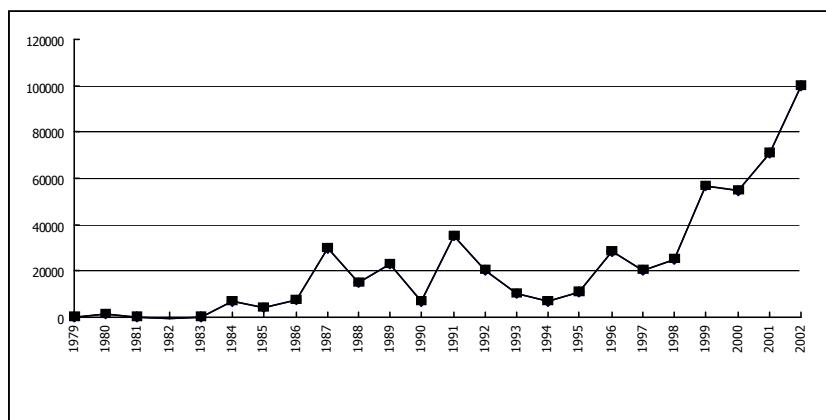
- 최근 들어 중국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바, 이는 기술력과 자본축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중국기업들이 단순한 무역사무소 설치 및 소규모 투자에서 벗어나 해외 생산기지 건설과 자원개발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숫자나 규모면에서는 여전히 국유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민영기업의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지역도 홍콩·마카오 중심에서 벗어나 미국·유럽·남미지역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
 - 그러나, 투자방식에 있어서는 독자나 합자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같은 M&A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은 자금·지식·경험 등이 부족함.
 - 한편, 정부의 지나친 간섭, 해외투자 관련 법규 미비, 사후 관리·감독 미비, 외환결제상의 제약, 정부부처간 협조체계 결여, 정보 부족 등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중국의 해외투자 추이

- 연도별 투자 추이

- 1991년 3.7억 달러를 기록한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는 1994년 7,000만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당의 ‘走出去’ 전략(해외진출전략)과 해외가공무역 지원정책에 힘입어 1999년 5.9억 달러를 기록한 아래 지속적인 증가를 보임.
- 2002년 말 현재 해외투자기업의 수는 총 6,960개, 투자금액은 93.4억 달러에 달하는바, 그 중에서 420개 기업이 해외가공무역기업이며 이들의 투자금액은 11.2억 달러임.
- o 한편, 2002년 한 해 동안 승인된 해외투자기업의 수와 투자금액은 각각 350개, 9.8억 달러이며, 그 중 75개 해외가공무역기업이 1.7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함.

<그림-1> 중국의 연도별 해외투자 추이 (1979~2002)



주 : 단위는 만달러.

□ 국가별·지역별 투자 추이

- 중국의 해외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홍콩이며, 이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순서임.
- o 지역별로는 홍콩·마카오가 전체 해외투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이어서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대양주, 유럽지역의 순임.
- 홍콩·마카오를 제외하면, 중국의 해외투자는 주로 선진국에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아시아, 남미, 동구, 러시아 등 개도국으로 투자대상지역이 다양화되고 있음.

<표-1> 중국의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2001. 6 현재)

(단위 : 억 달러)

국가/지역	기업 수	비중(%)	중방추 계약액	비중(%)
홍콩·마카오	2,184	33.9	36.8	47.3
아시아	1,271	19.7	8.0	10.3
유럽	1,102	17.1	4.4	5.6
북미	774	12.0	10.7	13.8
아프리카	524	8.1	7.1	9.2
남미	307	4.8	5.9	7.6
대양주	277	4.3	4.9	6.3
총계	6,439	100.0	77.8	100.0

주 : 동 자료는 무역기업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 중국대외무역경제협작부.

- 한편, 중국의 非무역기업이 4,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국가는 2001년 말 현재 20개국에 달하며, 건수와 금액은 1,761건, 33.3억 달러로 중국전체 해외투자 (3,091 건, 44.3억 달러)의 57.0%와 75.0%에 해당함.

<표-2> 최근 중국 非무역기업의 해외투자 추이

연도	기업 수 (개)	투자액 (만 달러)
1991	207	36,698.9
1992	355	19,532.0
1993	294	9,602.2
1994	106	7,062.2
1995	119	10,643.4
1996	103	29,383.2
1997	158	19,630.2
1998	266	25,901.7
1999	220	59,063.7
2000	243	55,096.6
2001	232	70,754.1
2002	250	98,300.0
총계	2,653	441,668.2

주 : 2002년도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각 연도판

<표-3> 중국 非무역기업의 주요 국가별 해외투자 현황 (2001년말 현재)

(단위 : 만 달러)

순위	국가/지역	기업 수	투자액	순위	국가/지역	기업 수	투자액
1	미국	329	55,898.7	11	남아공	83	11,084.9
2	홍콩	262	47,316.8	12	브라질	31	9,538.3
3	캐나다	95	39,175.3	13	마카오	62	6,049.5
4	호주	118	35,113.1	14	말리	5	5,812.2
5	페루	13	19,956.1	15	인도네시아	45	5,792.4
6	태국	154	19,381.7	16	베트남	41	5,606.8
7	멕시코	36	14,292.6	17	몽고	62	5,320.8
8	잠비아	17	13,412.6	18	미얀마	23	4,726.1
9	러시아	297	12,965.5	19	뉴질랜드	17	4,682.0
10	캄보디아	54	11,959.3	20	파푸아뉴기니	17	4,414.1
소계(1~10위)		1,375	269,471.7	소계(11~20위)		386	63,027.0

자료 :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2002).

□ 산업별·업종별 투자 추이

- 과거에는 무역사무소 설치와 요식업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광산·임업·어업·에너지 등 자원개발과 가전제품·방직의류·전기기계제품 등 해외가공무역, 농업 및 농산품 개발, 요식업, 관광, 소매업, 컨설팅서비스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음.

□ 투자규모별 추이

- 무역부문의 중·소규모 투자 중심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해외투자는 평균 1,000만 달러 이상 소요되는 자원개발 투자를 중심으로 대형화되는 추세임.
 - o '90년대 이후 비무역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규모도 대형화됨.
 - o '90년대 전반기의 평균 해외투자 규모는 건당 100만 달러 정도였으나, 1996년 이후 투자규모가 확대되면서 2001년도 평균 해외투자규모가 처음으로 건당 300만 달러를 넘어섬.
- 최근의 대형 생산기지 투자 사례
 - o 深圳 캉지아(康佳)그룹은 1,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에 칼라TV 가공조립 공장을 설립함.
 - o 꺼리(格力)그룹은 2,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브라질에 가전제품 공장을 설립함.

- o 珠海 화디엔(華電)그룹은 4,8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캄보디아에 디젤발전소를 설립함.

<표-4> 중국의 평균 해외투자규모 추이
(단위 : 만 달러)

연도	투자건수(개)	투자액	평균투자액
1991	207	36,698.9	177.3
1992	355	19,532.0	55.0
1993	294	9,602.2	32.7
1994	106	7,062.2	71.7
1995	119	10,643.4	89.4
1996	103	29,383.2	285.3
1997	158	19,630.2	124.2
1998	266	25,901.7	97.4
1999	220	59,063.7	268.5
2000	243	55,096.6	226.7
2001	232	70,754.1	305.0
2002	350	98,300.0	280.9
총계	2,653	441,668.3	166.5

자료: 중국대외무역경제협작부.

3. 최근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특징

□ 민영기업의 투자 증가

- 민영기업의 투자 증가 원인은 국유기업에 비해 경영상의 재량권·융통성이 있고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적어 상대적으로 해외투자가 용이하기 때문임.
- o 浙江 萬向그룹은 미국내에 자동차부품회사를 설립하여 포드 등 자동차회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江蘇省·浙江省의 민영기업들은 남미, 중앙아시아, 러시아, 브라질 등에 공동으로 전문시장을 개설, 제품을 대량수출하고 있음.

□ 생산기지 건설 투자 증가

- 미·유럽·동남아 등지에 냉장고 조립공장을 설립한 하이얼(海爾)그룹을 비롯하

여 康佳, 중성(中興)통신, 格力, 시엔커(先科) 등 첨단기술기업들이 선·개도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음.

□ 하이테크 산업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최근 들어 海爾, 康佳, 中興통신, 格力그룹 등은 컴퓨터·전자·가전제품 등 하이테크부문에 대한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음.

- 萬向, 華力, 海爾, 中興 등 첨단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에 독자 또는 합자형태의 R&D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대부분이 독자 또는 합자 형태로 추진

- 현재까지는 자금력·지식·경험 부족으로 인해 M&A 투자가 매우 적은 편이나, 中信그룹의 포틀랜드 알루미늄회사 지분(10%) 인수, 중국해양석유의 스페인석유회사 인수(5.9억 달러) 등 M&A 방식의 투자도 나타나기 시작함.

4. 중국의 해외투자 제약요인

□ 해외투자 관련 법규 미비 및 사후 관리·감독 부족

- 이로 인해 정책의 안정성·투명성·연속성 등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 정책도 주로 투자의 심사비준에만 집중되어 있어 해외상장이나 M&A 등 국제적인 투자방식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

- 투자는 기업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문성이 부족한 정부에 의해 투자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투자액 규모의 제한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결정이 제약을 받고 있음.
- 심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어 투자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 일부 기업은 복잡한 심사절차를 피하기 위해 음성적인 해외투자, 편법에 의한 재투자 등을 사용함.
- 원활하지 못한 외환관리제도로 인해 생산규모의 확대나 재투자가 어려움.
- 국유기업과 같은 절차를 통해 비준이 결정되므로 민영 및 3자기업에 불리함.

□ 외환결제상의 제약 및 정부부처간의 업무협조시스템 부재

- 수출입기업에게만 외환결제를 허용하는 현행 외환제도로 인해 일반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위한 외환결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 부처간 이견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바, 예를 들어 외환관리국은 先기업투자항목 비준·後외환리스크심사를 주장하는 반면, 경제무역위원회는 외환관리에 대한 심사의견을 신청시 제출자료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장기적인 투자전략 부재

- 재산권상의 제한,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정보·인재의 부족 등으로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하지 못함으로써 해외투자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

□ 정보 및 경험 부족

- 경험 부족과 공공정보서비스체계 부재 등으로 인해 투자지역의 법률, 투자정책, 금융 및 외환시장, 조세체계, 시장상황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